

1PAGE 칼럼

건강보험 돋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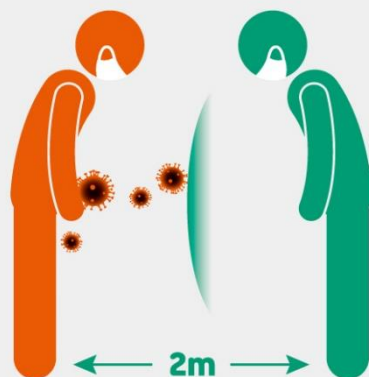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시대, 안전한 인사법은 무엇일까요?

악수 대신 **목례**가 안전합니다.



악수 · 주먹악수 X

대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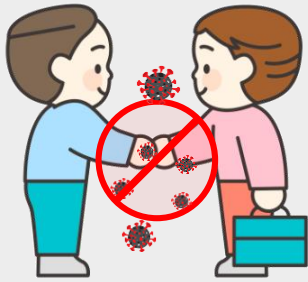


2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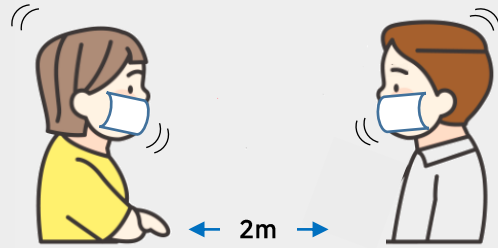
목례 O



악수 대신 '목례가 안전' 합니다.



악수·주먹악수 NO!



목례 Yes!

‘악수’ 하는 것은 위험해요

코로나 시대, ‘악수’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**손으로 전파되는 각종 바이러스**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.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, ‘코로나19 이전 대비 악수 빈도가 줄었다’고 답변한 국민이 **83.9%**로 나타났습니다.

그러나 아직 **특수한 상황에서는 ‘악수나 주먹악수’**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악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, 이렇게 ‘접촉식 인사’를 하는 경우는 **40.9%**에 달하고 있습니다.

‘주먹악수’ 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

하지만 주먹 악수를 포함한 **접촉식 인사**는 **굉장히 위험한 행동**입니다. 작년 8월, 미국의 의학 전문 콘텐츠 RELIAS MEDIA의 연구 결과, 악수(22%)뿐 아니라 접촉면이 현저히 좁은 주먹 악수(16%)도 **바이러스 전이 빈도가 높다**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

‘악수·주먹악수’의 대안은 목례입니다

우리 함께, **서로 손을 내밀지 않는 문화**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 직장 내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손을 내미는 행위는 지양하고, 대신 **우리나라의 전통 인사**이며 **비접촉식 인사인 목례**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. ‘악수 대신 목례’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한 인사법입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**‘악수 대신 목례’ 캠페인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
출처 - 코로나19 관련 악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(국민건강보험공단, 2021.5.)

**COVID-19 대유행에서 악수와 주먹악수의 바이러스 등 전파효과 연구(RELIAS MEDIA, 2020.8.1.)



